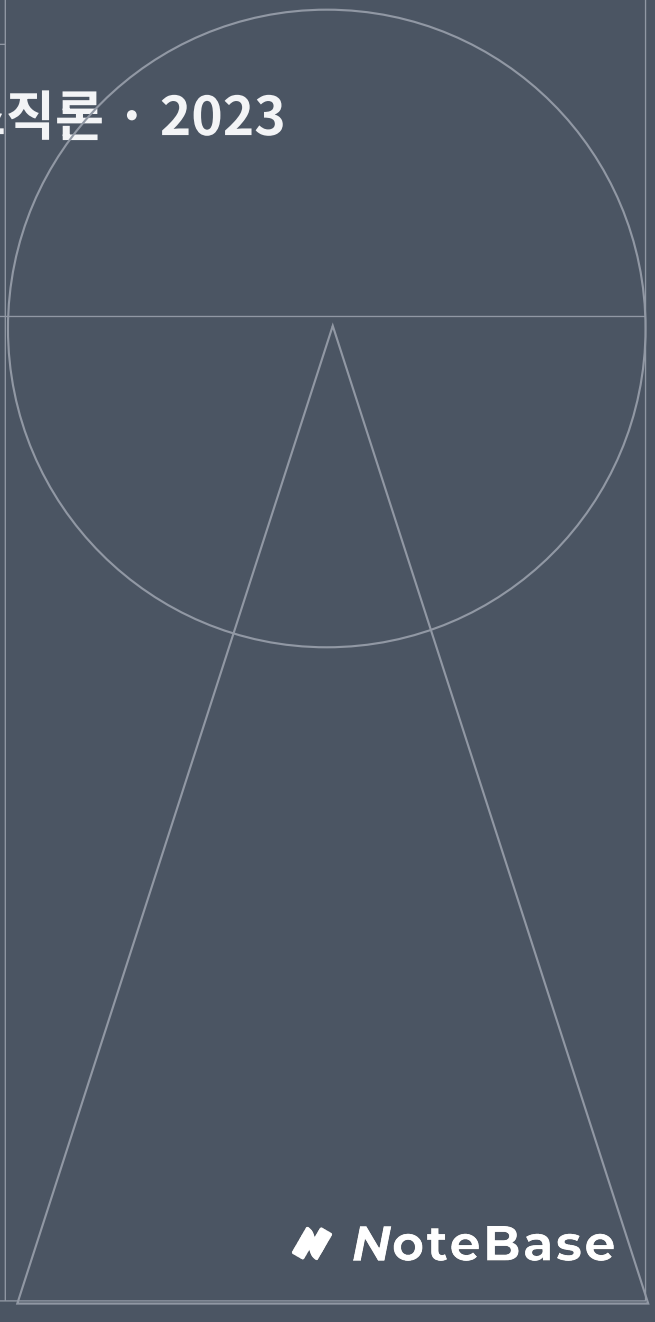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3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3

1. 다음 KDC 6판의 설명에 근거하여, "한국 신예루살렘파의 예배형식"의 분류기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7	예배, 의식, 성례
238.9	기타 기독교 분파 별법: 도서관에 따라 231-23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93	신예루살렘파
지역구분표	
-11	대한민국
표준구분표	
-09	역사 및 지역구분

① 238.93711
② 238.9370911
③ 238.93709
④ 238.9371109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DC 본표의 세분 지시와 표준구분표·지역구분표를 적용하여 분류기호를 올바른 순서로 합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신예루살렘파의 기호를 확정한다 — 238.9 아래의 .93을 적용하여 238.93이 된다.
2. 예배형식의 기호를 합성한다 — 238.9의 '231-23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는 지시에 따라 237의 끝자리 7을 붙여 238.937이 된다.
3. 역사 및 지역구분을 나타낸다 — 표준구분표의 -09를 붙여 238.93709가 된다.
4. 대한민국을 나타낸다 — 지역구분표의 -11에서 11을 이어 붙여 238.9370911이 된다.

왜 이 순서인가: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기호 11은 '역사 및 지역구분'의 표준구분 09를 먼저 설정한 뒤 그 아래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38.93711은 대한민국의 지역기호 11을 바로 붙여 표준구분 -09를 누락하였다. 올바르게는 09를 먼저 붙인 238.9370911이다.
② O — 신예루살렘파 238.93에 예배의 7, 역사 및 지역구분의 09, 대한민국의 11을 차례로 합성한 238.9370911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238.93709는 표준구분 -09까지만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뜻하는 지역기호 11을 누락하였다. 올바르게는 11까지 붙인 238.9370911이다.
④ X — 238.9371109는 지역기호 11과 표준구분 09의 순서를 뒤바꾸었다. 올바르게는 09 다음에 11을 붙인 238.9370911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대한민국의 지역기호 11을 곧바로 붙이거나 09보다 먼저 붙이는 것이다. 이 문항의 지역 표현은 표준구분 09를 매개로 하므로 09와 11의 순서가 반드시 0911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기호 합성 문제에서는 본표의 기본기호를 만든 뒤 세분 지시를 적용하고, 표준구분을 먼저 붙인 다음 그 표준구분이 요구하는 지역기호를 이어 붙이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예루살렘파 238.93 → 예배 7 → 역사·지역 09 → 대한민국 11 = 238.9370911이다.

NoteBase

2. 분류기호에 부여된 주제 중 서로 가장 거리가 먼 조합은?
① DDC 23 - 320, KDC 6 - 340
② DDC 23 - 120, KDC 6 - 120
③ DDC 23 - 620, KDC 6 - 520
④ DDC 23 - 780, KDC 6 - 67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DDC 제23판과 KDC 제6판의 강목 기호가 나타내는 실제 주제를 대조하여, 의미상 가장 관련이 적은 조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기호는 주제를 배열한 기호이므로 두 기호의 숫자 차이가 곧 주제 간 거리를 뜻하지 않는다. 각 분류표에서 해당 기호의 표목을 확인해 같은 주제인지 다른 주제인지 판단한다. 이 문항의 대응은 정치학-정치학, 인식론·인과론·인간학-인식론·인과론·인간학, 공학-농업·농학, 음악-음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DDC 320과 KDC 340은 모두 정치학을 나타내므로 주제상 같은 영역이다. 틀린 판단은 이 조합이 가장 멀다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가까운 조합이다.
② X — DDC 120과 KDC 120은 모두 인식론·인과론·인간학을 나타내므로 주제상 일치한다. 틀린 판단은 이 조합이 가장 멀다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가까운 조합이다.
③ O — DDC 620은 공학이고 KDC 520은 농업·농학이다. 나머지 세 조합은 두 분류표에서 사실상 같은 주제를 대응시키지만, 이 조합만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하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④ X — DDC 780과 KDC 670은 모두 음악을 나타내므로 기호의 숫자는 크게 달라도 주제는 같다. 틀린 판단은 숫자 차이가 가장 크므로 주제도 가장 멀다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가까운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780과 670은 숫자 차이가 110으로 가장 커 보여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기호는 수량이나 간격을 재는 값이 아니며, 두 기호는 모두 음악을 뜻한다. 숫자 차이가 아니라 표목의 의미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로 다른 분류표의 기호를 비교할 때는 숫자를 빼지 않고 각 기호를 주제명으로 바꾼 뒤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세 조합이 같은 주제를 가리키고 한 조합만 다른 주제를 가리키면 그 조합을 의미상 가장 먼 것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DDC 320-KDC 340은 정치학, DDC 120-KDC 120은 인식론, DDC 780-KDC 670은 음악이며, DDC 620 공학-KDC 520 농업·농학만 불일치한다.

NoteBase

3. 다음은 DDC T1의 구분지이다. 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1 Philosophy and theory
-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04 Special Topics
-05 Serial Publication
-06 Organizations
-08 Group of People

① -01, -04, -06, -08, -05, -03
② -01, -04, -08, -06, -05, -03
③ -04, -01, -08, -06, -03, -05
④ -04, -01, -06, -08, -03, -0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DDC 보조표 T1의 표준구분이 둘 이상 적용될 때 사용하는 우선순위는 구분기호의 숫자 크기나 제시된 순서가 아니라 정해진 우선순위표에 따라 판단한다.

올바른 순서

-04 Special Topics → -01 Philosophy and theory → -06 Organizations → -08 Group of People → -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 -05 Serial Publication

이 순서는 여러 표준구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적용하는 DDC T1의 우선순위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04가 -01보다 앞서고, -06이 -08보다 앞서며, -03이 -05보다 앞선다는 세 선후관계가 정답을 가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 -01을 -04보다 앞에 두고, -05를 -03보다 앞에 둔 배열이 잘못되었다.
- 올바르게는 -04 → -01 → -06 → -08 → -03 → -05이다.

② X
- 틀린 부분: -01을 -04보다 앞에 두었고, -08을 -06보다 앞에 두었으며, -05를 -03보다 앞에 두었다.
- 올바르게는 -04 → -01 → -06 → -08 → -03 → -05이다.

③ X
- 틀린 부분: -08 Group of People을 -06 Organizations보다 앞에 둔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
- 올바르게는 -06 Organizations가 -08 Group of People보다 먼저이므로 전체 순서는 -04 → -01 → -06 → -08 → -03 → -05이다.

④ O
- -04, -01, -06, -08, -03, -05의 순서로 배열하여 제시된 표준구분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구분기호를 -01, -03, -04처럼 숫자순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③은 처음의 -04 → -01과 끝의 -03 → -05는 맞지만, 가운데 -06과 -08을 뒤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전체 배열을 한 번에 비교하기보다 -04가 -01보다 앞서는지, -06이 -08보다 앞서는지, -03이 -05보다 앞서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이 세 쌍을 모두 만족하는 배열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특철기집사연: 특수주제(-04) → 철학·이론(-01) → 기관(-06) → 사람 집단(-08) → 사전류(-03) → 연속간행물(-05)이다.

NoteBase

4. 다음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라 작성된 도서기호이다. 이 기호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18논4=2

① 이 책의 저자는 홍 씨이군.
② 이 책의 제목은 '논'으로 시작하는군.
③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이 2번째 권이군.
④ 이 책은 4판이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으로 작성된 '홍18논4=2'에서 저자기호, 저작기호, 판차기호, 복본기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홍18'은 저자기호, '논'은 저작기호, '4'는 판차기호, '=2'는 복본기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홍18'의 '홍'은 저자의 성을 나타내므로 저자는 홍 씨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O — 저자기호 뒤의 '논'은 서명의 첫 글자를 나타내는 저작기호이므로 제목은 '논'으로 시작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③ X — '=2'를 두 번째 권이라는 권차기호로 해석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가 동일한 책 가운데 두 번째로 소장된 복본임을 뜻하며, 이 기호만으로 상·하 2권 구성이나 제2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④ O — 저작기호 '논' 뒤의 숫자 '4'는 판차기호이므로 이 책은 제4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끝의 숫자 2만 보고 권차로 오인하게 만든 선지이다. 숫자 앞의 부호까지 함께 읽어야 하며, '=2'는 권차가 아니라 두 번째 복본을 나타낸다. 또한 '논4'의 4는 권수가 아니라 판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서기호를 앞에서부터 저자기호, 저작기호, 판차기호 순으로 나누고, 등호가 붙은 숫자는 복본기호로 판단한다. 권차와 복본을 가를 때에는 숫자만 보지 않고 앞에 붙은 기호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저자＋저작＋판차＋=복본'으로 기억한다. '=2'는 제2권이 아니라 두 번째 복본이다.

NoteBase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글자들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 (㉠)은/는 전한(前漢)의 성제(成帝)가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 남아있는 책을 수집·정리하여 만든 해제목록으로, (㉡)이/가 그 편찬 책임을 맡았다. (㉡)가 죽고 그의 아들 (㉢)이 편찬을 이어나갔는데, (㉡)의 분류법을 개선하여 새롭게 편성한 것이 7권으로 구성된 칠략(七略)이다.

① ㉠ 칠지(七志), ㉡ 유향(劉向), ㉢ 유흠(劉歆)
② ㉠ 칠지(七志), ㉡ 유흠(劉歆), ㉢ 유향(劉向)
③ ㉠ 별록(別錄), ㉡ 유향(劉向), ㉢ 유흠(劉歆)
④ ㉠ 별록(別錄), ㉡ 유흠(劉歆), ㉢ 유향(劉向)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한 성제 때 이루어진 목록 편찬의 흐름을 별록·유향·유흠·칠략의 관계로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별록(別錄): 전한 성제의 명에 따라 유향이 궁중의 장서를 수집·교정하고 해제를 붙여 편찬한 해제목록이다.
유향(劉向): 별록의 편찬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유흠(劉歆): 유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작업을 이어받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칠략(七略)을 편성하였다.
칠략(七略): 유향의 별록을 바탕으로 유흠이 새롭게 편성한 7권의 목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유향과 유흠의 연결은 맞지만, (ㄱ)의 '칠지(七志)'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별록(別錄), (ㄴ) 유향(劉向), (ㄷ) 유흠(劉歆)'이다.
② X — (ㄱ)의 '칠지(七志)'가 틀렸고 유향과 유흠도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ㄱ) 별록(別錄), (ㄴ) 유향(劉向), (ㄷ) 유흠(劉歆)'이다.
③ O — 성제의 명을 받아 별록을 편찬한 책임자는 유향이며, 그의 아들 유흠이 작업을 이어받아 칠략을 편성했으므로 세 빈칸이 모두 맞다.
④ X — (ㄱ)의 별록은 맞지만 (ㄴ)의 '유흠'과 (ㄷ)의 '유향'이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ㄴ) 유향(劉向), (ㄷ) 유흠(劉歆)'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별록과 칠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부자인 유향과 유흠의 편찬 순서를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지문에서 먼저 편찬 책임을 맡은 아버지가 유향이고, 그 작업을 이어 칠략을 편성한 아들이 유흠이라는 순서를 잡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제의 명을 받은 해제목록’이 나오면 별록과 유향을 먼저 연결하고, ‘아들이 계승하여 7권으로 편성’이 나오면 유흠과 칠략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별록은 아버지 유향, 칠략은 아들 유흠이다.

NoteBase

6. 다음 3가지 단어의 관계를 분류의 3요소와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것은?

㉠ 그림 ㉡ 사용 도구 ㉢ 수채화, 유화...

① ㉠은 피분류체, ㉡은 분류원리, ㉢은 분류지이다.
② ㉠은 분류원리, ㉡은 분류지, ㉢은 피분류체이다.
③ ㉠은 피분류체, ㉡은 분류지, ㉢은 분류원리이다.
④ ㉠은 분류지, ㉡은 분류원리, ㉢은 피분류체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류의 3요소인 피분류체, 분류원리, 분류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분류체는 분류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개념이다. 분류원리는 피분류체를 나누는 데 적용하는 속성이나 기준이다. 분류지는 그 원리에 따라 나뉘어 나온 각각의 집단이나 범주이다. 따라서 '그림'은 피분류체, '사용 도구'는 분류원리, '수채화·유화 등'은 분류지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그림은 분류 대상인 피분류체이고, 사용 도구는 그림을 나누는 기준인 분류원리이며, 수채화·유화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형성된 분류지이므로 옳다.
② X — '그림은 분류원리, 수채화·유화 등은 피분류체'라는 배치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그림이 피분류체이고, 사용 도구가 분류원리이며, 수채화·유화 등이 분류지이다.
③ X — '사용 도구는 분류지, 수채화·유화 등은 분류원리'라는 배치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사용 도구가 분류원리이고, 수채화·유화 등이 분류지이다.
④ X — 피분류체·분류원리·분류지의 배치를 모두 잘못 바꾸었다. 올바르게는 그림이 피분류체이고, 사용 도구가 분류원리이며, 수채화·유화 등이 분류지이다.

오답 포인트

분류원리와 분류지는 모두 분류 과정에 등장하므로 서로 바꾸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사용 도구'가 나누는 기준이고, '수채화·유화'가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엇을 나누는지 찾으면 피분류체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찾으면 분류원리이며, 나눈 결과로 생긴 항목을 찾으면 분류지이다.

암기 포인트

대상은 피분류체, 기준은 분류원리, 결과는 분류지이다.

NoteBase

7. 분류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십진분류표는 주류와 강목 등에 알파벳 문자만 사용하는 경우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는 것이 있다.
②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어떤 특정한 원리를 적용해 패싯(facet)이라는 기본 주제로 구분하고, 최소 분류항목과 보조표를 일정한 조합공식에 따라 합성하는 것이다.
③ 열거식 분류표는 십진법을 적용한 분류표로, 분석합성식 분류표보다 편찬하기에 용이하며 규모가 적어질 수 있다.
④ 대다수 대학 및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식(학문)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하므로 특수분류표를 사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분류표의 기호 체계와 전개 방식, 적용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십진분류표: 지식을 10개씩 단계적으로 나누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분류표이다.
분석합성식 분류표: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한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기호를 합성하는 분류표이다.
열거식 분류표: 가능한 주제를 미리 열거하고 각각에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분류표이다.
일반분류표는 전 지식 분야를 포괄하고, 특수분류표는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십진분류표는 주류와 강목 등에 알파벳 문자만 사용하거나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다'이다. 십진분류표는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지식을 십진식으로 전개한다. 알파벳만 쓰거나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은 십진분류표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다.

② O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복합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하고, 최소 분류항목과 보조표의 기호를 일정한 조합공식에 따라 합성한다. 따라서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원리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③ X
'열거식 분류표는 십진법을 적용한 분류표'라는 설명부터 틀렸다. 열거식 분류표는 가능한 주제를 미리 열거하는 전개 방식에 따른 유형이며, 십진법의 적용 여부로 정의되지 않는다. 또한 열거식 분류표는 주제를 미리 열거하므로 일반적으로 표가 방대해지고 새로운 주제의 수용과 갱신이 어려워, 분석합성식 분류표보다 편찬하기 쉽고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반면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필요한 요소를 조합하므로 열거식보다 간결하고 확장성이 높다.

④ X
틀린 표현은 '대다수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특수분류표를 사용한다'이다. 여러 학문 분야의 자료를 다루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전 지식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분류표를 주로 사용한다. 특수분류표는 특정 분야의 전문도서관이나 전문 자료군에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열거식 분류표를 십진법을 적용한 분류표로 규정한 부분 자체가 틀렸으며, 편찬이 쉽고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열거식과 분석합성식은 기호가 십진식인지보다 주제를 미리 나열하는지, 요소를 분석하여 합성하는지로 구별한다. ④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말이 특수분류표가 아니라 일반분류표의 사용 근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0진 숫자 전개'는 십진분류표, '패싯 분석 후 조합'은 분석합성식, '주제를 미리 나열'은 열거식으로 판단한다. 적용 범위는 전 분야이면 일반분류표, 특정 분야이면 특수분류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십진은 숫자, 분석합성은 패싯 조합, 열거식은 사전 나열, 전 분야는 일반분류표이다.

NoteBase

8.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CC)의 기본 범주인 PMEST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ersonality, Material, Energy, Space, Technology
② Publicity, Matter, Energy, Space, Technology
③ Publicity, Material, Energy, Space, Time
④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다섯 가지 기본범주 PMEST의 정확한 영문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PMEST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Personality(개성)는 분류 대상의 핵심 실체나 중심 주제를, Matter(물질)는 그 대상의 재료·성질을, Energy(에너지)는 작용·활동·과정을 나타낸다. Space(공간)는 장소를, Time(시간)은 시기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Personality, Energy, Space는 맞지만 Material과 Technology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이다.
② X — Publicity와 Technology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이다.
③ X — Publicity와 Material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이다.
④ O —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은 PMEST의 각 글자와 순서대로 정확히 대응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P를 Publicity로, M을 Material로, T를 Technology로 바꾸어 머리글자만 맞는 유사 단어를 제시한다. PMEST는 단순히 같은 첫 글자를 가진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다섯 기본범주의 고유 명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MEST를 P-Personality, M-Matter, E-Energy, S-Space, T-Time으로 하나씩 대조한다. 첫 글자만 맞더라도 명칭이 다르면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PMEST = Personality · Matter · Energy · Space · Time = 개성 · 물질 · 에너지 · 공간 · 시간이다.

NoteBase

9.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1967년 4개 단체가 협력하여 출판한 목록규칙의 명칭은?
① AACR
② ISBD(M)
③ KORMARC
④ RDA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961년 파리원칙을 토대로 1967년에 발행된 영미계 목록규칙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ACR(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는 파리 국제목록원칙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미권의 목록규칙을 통합·표준화하여 1967년에 발행한 목록규칙이다.
ISBD(M)는 단행본의 서지기술 요소와 그 배열·구두점을 표준화한 국제표준서지기술이다.
KORMARC는 서지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한국형 기계가독목록 형식이다.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AACR2를 계승하여 디지털 환경과 다양한 자원에 대응한 자원 기술·접근 지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ACR은 1961년 파리 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과인 파리원칙을 기초로 협력하여 1967년에 발행한 목록규칙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ISBD(M)는 단행본의 서지기술 방식과 기술요소의 순서·구두점을 표준화한 것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1967년 목록규칙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 'ISBD(M)'는 'AACR'로 고쳐야 한다.
③ X — KORMARC는 한국의 서지 레코드를 기계가독형으로 작성·교환하기 위한 형식이므로, 파리원칙을 토대로 1967년에 발행된 영미계 목록규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 'KORMARC'는 'AACR'로 고쳐야 한다.
④ X — RDA는 AACR2를 계승한 자원 기술·접근 지침이므로, 1967년에 발행된 목록규칙을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 'RDA'는 'AACR'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네 용어가 모두 목록·서지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1961년 파리원칙'과 '1967년 발행'이라는 두 단서를 함께 만족하는 것은 AACR이며, ISBD(M)는 서지기술 표준, KORMARC는 기계가독목록 형식, RDA는 AACR2의 후속 지침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와 기능을 함께 대조한다. 파리원칙·1967년·영미 목록규칙이면 AACR, 단행본의 기술요소·순서·구두점이면 ISBD(M), 기계가독형 서지 레코드 형식이면 KORMARC, AACR2를 계승한 자원 기술·접근 지침이면 RDA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리원칙 1961 → AACR 1967, 기술은 ISBD(M), 형식은 KORMARC, 후속 지침은 RDA이다.

NoteBase

10. DD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패싯을 중시하는 관점분류를 지양하고 개별 주제에 따른 분류를 지향한다.
② 주류가 학문분류에 기반을 두고 분류표 전반에서 십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③ 요약이 있으며, 이 요약은 상위 3단계 요약·2단계 요약·1단계 요약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④ 구조적 및 기호적 측면에서 하향식 계층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DDC의 분류 원리, 십진식 전개, 요약표, 계층구조라는 핵심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학문 분야에 따라 배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십진식 기호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전개하는 열거식 분류표이다. 같은 주제라도 어느 학문적 관점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번호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주류·강목·요목에 해당하는 상위 세 계층을 단계별 요약으로 제시하며, 구조와 기호 양쪽에서 계층관계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특정 패싯을 중시하는 관점분류를 지양하고 개별 주제에 따른 분류를 지향한다'이다. DDC는 개별 주제 자체보다 그 주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와 관점을 중심으로 배열한다. 올바르게는 'DDC는 학문 분야에 기반한 관점분류를 지향하며, 같은 주제도 다루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여러 위치에 분류될 수 있다'이다.
② O — DDC의 주류는 지식의 주요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을 10개씩 세분하는 십진식 전개 원리가 분류표 전반에 적용된다.
③ O — DDC의 요약은 상위 계층을 보여 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제공된다. 제1요약은 10개 주류, 제2요약은 100개 강목, 제3요약은 1,000개 요목을 제시한다.
④ O — DDC는 구조적 계층과 기호적 계층을 함께 사용한다. 상위의 포괄적 개념에서 하위의 구체적 개념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계층구조를 취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DDC가 주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이용해 '개별 주제 중심'인 것처럼 바꾼 선지이다. 핵심은 무엇을 다루는지가 아니라 그 주제를 어느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다루는지이다. 또한 ③의 세 요약은 별개의 분류체계가 아니라 동일한 DDC의 상위 계층을 서로 다른 상세 수준으로 보여 주는 장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 선지는 '학문 분야 중심', '십진식 전개', '세 단계 요약', '구조적·기호적 계층'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제 자체만으로 한 곳에 분류한다'거나 '학문적 관점을 지양한다'는 표현은 DDC의 학문분류 원리와 반대이다.

암기 포인트

DDC는 학문 분야별 관점분류, 십진식 전개, 10·100·1,000 요약, 구조·기호의 하향식 계층이다.

NoteBase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가장 최초로 제정된 ISBD이다.
- (㉡)은 일반공통용으로 모든 매체들의 기본규칙이었다.
- 2011년에 각 매체별로 제정된 ISBD 통합판이 발행되었다.

① ㉠ - ISBD(M), ㉡ - ISBD(M)
② ㉠ - ISBD(G), ㉡ - ISBD(G)
③ ㉠ - ISBD(G), ㉡ - ISBD(M)
④ ㉠ - ISBD(M), ㉡ - ISBD(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ISBD(M)과 ISBD(G)의 제정 순서와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BD(M): 단행본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제정된 국제표준서지기술이다.
ISBD(G): 특정 자료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각 매체별 ISBD가 공통으로 따르는 일반적·총괄적 기술 원칙을 제시한 표준이다.
따라서 ㉠은 ISBD(M), ㉡은 ISBD(G)이며, 2011년에는 매체별 ISBD를 하나로 통합한 ISBD 통합판이 발행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ISBD(M)은 맞지만 ㉡의 ISBD(M)은 틀리다. '일반공통용으로 모든 매체들의 기본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ISBD(G)이다. 올바르게는 '㉠-ISBD(M), ㉡-ISBD(G)'이다.
② X — ㉠을 ISBD(G)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가장 최초로 제정된 ISBD는 단행본용 ISBD(M)이다. 올바르게는 '㉠-ISBD(M), ㉡-ISBD(G)'이다.
③ X — ㉠과 ㉡을 모두 뒤바꾸었다. 최초 제정 표준은 ISBD(M)이고, 모든 매체의 일반공통 기본규칙은 ISBD(G)이다. 올바르게는 '㉠-ISBD(M), ㉡-ISBD(G)'이다.
④ O — ISBD(M)은 가장 먼저 제정된 단행본용 표준이고, ISBD(G)는 모든 매체에 공통되는 일반적 기본규칙이므로 두 빈칸의 연결이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M을 단순히 여러 매체에 공통되는 표준으로 오해하면 ㉡에도 ISBD(M)을 넣기 쉽다. M은 Monographic publications, 즉 단행본을 가리키고, G는 General, 즉 일반공통 규칙을 가리킨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장 최초·단행본’이라는 단서에는 ISBD(M)을, ‘일반공통·모든 매체의 기본규칙’이라는 단서에는 ISBD(G)를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M은 Monograph·최초, G는 General·공통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AACR을 비롯한 전통적인 목록에서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만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제명 ㉡ 저자(단체) ㉢ 분류기호 ㉣ 표제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통적인 목록에서 기본표목이 될 수 있는 접근점과 주제·분류 접근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표목은 기본기입의 첫머리에 놓여 그 기입을 대표하는 표목이다. AACR을 비롯한 전통적 목록에서는 저자명과 표제가 기본표목이 될 수 있다. 저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단체명을 기본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며, 저자 기본표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표제가 기본표목이 될 수 있다. 반면 주제명은 주제 접근을 위한 표목이고,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 분류와 배열·배가에 쓰이는 기호이므로 기본표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주제명과 ㄷ 분류기호는 모두 기본표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ㄴ 저자(단체)와 ㄹ 표제를 골라야 한다.
② X — ㄹ 표제는 기본표목이 될 수 있지만 ㄱ 주제명은 주제 접근을 위한 표목이다. 틀린 ㄱ 주제명을 ㄴ 저자(단체)로 고치면 옳다.
③ X — ㄴ 저자(단체)는 기본표목이 될 수 있지만 ㄷ 분류기호는 분류와 배열을 위한 기호이다. 틀린 ㄷ 분류기호를 ㄹ 표제로 고치면 옳다.
④ O — ㄴ 저자(단체)와 ㄹ 표제는 모두 전통적인 목록에서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주제명과 분류기호도 자료를 찾는 데 쓰인다는 점 때문에 기본표목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검색·배열에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표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문항에서는 기본기입을 대표할 수 있는 저자명 또는 표제를 찾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보가 저자명이나 표제이면 기본기입을 대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후보가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명이나 분류기호이면 주제·분류 접근 수단이므로 기본표목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표목은 저자·표제, 주제명과 분류기호는 제외이다.

NoteBase

13. KCR4 기술총칙의 기술구조와 제요소의 기재순서를 올바르게 기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발행사항 → 총서사항 →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②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주기사항 → 총서사항 → 판사항
③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판사항 → 형태사항 → 발행사항
④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형태사항 → 판사항 → 자료특성사항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CR4에서 기술요소의 8개 사항이 배열되는 표준 순서와, 일부 사항만 제시했을 때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KCR4 기술요소의 기본 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2. 판사항
3. 자료특성사항
4. 발행사항
5. 형태사항
6. 총서사항
7. 주기사항
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이 순서는 KCR4가 정한 기술사항의 배열 순서이다. 선지에서 중간 사항이 생략되더라도, 제시된 사항들의 상대적 순서가 이 배열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제와 책임표시사항(1) → 발행사항(4) → 총서사항(6) →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8)의 순서로, 중간 사항이 생략되었을 뿐 상대적 선후관계는 모두 맞다.

② X — 주기사항을 총서사항과 판사항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리다. 틀린 배열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주기사항 → 총서사항 → 판사항'은 올바르게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판사항 → 총서사항 → 주기사항'의 순서가 된다.

③ X — 형태사항을 발행사항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리다. 틀린 배열 '판사항 → 형태사항 → 발행사항'은 올바르게는 '판사항 → 발행사항 → 형태사항'의 순서가 된다.

④ X — 형태사항을 판사항과 자료특성사항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리다. 틀린 배열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형태사항 → 판사항 → 자료특성사항'은 올바르게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판사항 → 자료특성사항 → 형태사항'의 순서가 된다.

오답 포인트

선지에 8개 사항이 모두 나오지 않으므로 생략된 사항 자체를 오류로 보면 안 된다. ①은 일부 사항을 건너뛰지만 1번·4번·6번·8번 사항의 상대적 순서를 지킨다. 반면 ②는 판사항·총서사항·주기사항을, ③은 발행사항·형태사항을, ④는 판사항·자료특성사항·형태사항을 뒤섞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8개 사항에 1부터 8까지 순번을 붙인 뒤, 각 선지의 순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는지 확인한다. 중간 번호의 생략은 허용되지만, 앞 번호가 뒤 번호 다음에 나오면 잘못된 배열이다.

암기 포인트

표-판-자-발-형-총-주-표: 표제, 판, 자료특성, 발행, 형태, 총서, 주기, 표준번호의 순서이다.

NoteBase

14. 202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KORMARC 형식이 아닌 것은?
① 비도서자료용
② 통합서지용
③ 전거통제용
④ 소장정보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2023년 현재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KORMARC 형식과 통합서지용 형식에 흡수된 과거의 자료유형별 형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ORMARC는 서지정보를 기계가독형으로 표현하기 위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이다. 2023년 현재 통합서지용·전거통제용·소장정보용 형식은 유지되지만, 과거의 비도서자료용 형식은 통합서지용 형식에 통합되어 별도의 현행 형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도서자료용은 2023년 현재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KORMARC 형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도서자료용'이며, 올바르게는 비도서자료도 '통합서지용' 형식으로 기술한다.
② O — 통합서지용은 여러 자료유형의 서지레코드를 하나의 체계로 기술하는 현행 KORMARC 형식이다.
③ O — 전거통제용은 개인명·단체명·주제명 등의 표목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현행 KORMARC 형식이다.
④ O — 소장정보용은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소장하는지와 같은 소장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현행 KORMARC 형식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비도서자료용'은 과거에 사용된 명칭이어서 현재도 독립 형식으로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문두가 '아닌 것은'인 부정형이라는 점과 비도서자료용이 통합서지용에 흡수되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ORMARC의 현행 형식을 묻는 경우 '통합서지용·전거통제용·소장정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료유형별 과거 형식인 '비도서자료용'은 통합서지용에 통합된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행 핵심 형식은 통합서지·전거통제·소장정보이고, 비도서자료용은 통합서지용에 통합되었다.

NoteBase

15. 다음은 택소노미(taxonomy)와 폭소노미(folksonomy)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폭소노미의 장점은 높은 정확률(정확률 증가)과 이용자의 피드백 반영이다.
> ㉡ 택소노미는 하향식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폭소노미는 정보 이용자의 관점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탐색 도구로 개발한다.
> ㉣ 택소노미는 주제 전문가에 의한 분류체계와 자유로운 태깅 부여로 이루어진다.
> ㉤ 택소노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고비용 시스템이고 폭소노미는 저비용 시스템이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택소노미의 전문가 중심·하향식·통제된 분류와 폭소노미의 이용자 중심·자유 태깅·저비용이라는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택소노미(taxonomy)는 주제 전문가가 통제된 용어와 분류 기준에 따라 미리 설계하는 하향식 계층 분류체계이다.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용어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높다.
폭소노미(folksonomy)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자유롭게 태그를 붙이고 이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상향식 분류 방식이다. 이용자의 관점과 피드백을 빠르고 저렴하게 반영하지만, 동의어·다의어·표기 차이 때문에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ㄹ의 조합이다. ㄴ은 옳지만 ㄱ의 '높은 정확률'과 ㄹ의 '택소노미가 자유로운 태깅 부여로 이루어진다'는 틀렸다. 올바르게는 폭소노미는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지만 정확성과 일관성이 항상 높지는 않으며, 자유 태깅은 폭소노미의 특징이다.
② O — ㄴ·ㄷ·ㅁ의 조합이다. 택소노미는 하향식 계층 구조이고, 폭소노미는 이용자 관점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 탐색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택소노미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세 문장이 모두 옳다.
③ X — ㄱ·ㄷ·ㄹ·ㅁ의 조합이다. ㄷ과 ㅁ은 옳지만 ㄱ과 ㄹ이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ㄷ·ㅁ이다.
④ X — ㄴ·ㄷ·ㄹ·ㅁ의 조합이다. ㄴ·ㄷ·ㅁ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택소노미는 전문가가 통제된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태그 부여는 폭소노미에서 이루어진다.

오답 포인트

ㄱ은 '이용자의 피드백 반영'이라는 실제 장점에 '높은 정확률'을 함께 붙여 전체 문장을 그럴듯하게 만든 함정이다. 또한 ㄹ은 전문가 분류라는 택소노미의 특징과 자유 태깅이라는 폭소노미의 특징을 한 문장에 섞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문가·통제어·계층·하향식·고비용'이면 택소노미, '이용자·자유 태그·피드백·상향식·저비용'이면 폭소노미로 판단한다. 폭소노미에 '높은 정확성·일관성'이 붙으면 통제어가 없다는 약점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택소노미는 전문가가 위에서 짜는 분류,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아래에서 쌓는 태그이다.

NoteBase

16. 다음은 전거통제(전거제어, authority control)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거통제의 결과 생성된 레코드들의 집합으로,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일을 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라고 한다.
②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은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 표제, 주제, 주제세목의 전거 형식과 참조로 사용되는 다른 형식의 이름, 표제, 주제, 주제세목 그리고 전거 형식과 참조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③ 검색에 사용되는 접근점의 형식을 제어하여 일관성 있게 채택되도록, 그리고 관련된 접근점을 상호 연결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④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에서 접근점과 참조로 사용되는 주제세목의 전거 형식으로 일반세목(X80), 지리세목(X81), 연대세목(X82), 형식세목(X83)이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거통제의 정의와 그 결과물인 전거레코드·전거파일의 차이, 전거통제용 KORMARC의 범위와 주제세목 필드 부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거통제는 동일한 개체를 나타내는 여러 접근점의 형식을 통일하고 관련 접근점을 연결하여 검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전거레코드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전거형식, 이형·관련 형식, 근거 등을 담은 개별 레코드이고, 전거파일은 이러한 전거레코드들의 집합이다.
전거통제용 KORMARC의 기본 범주는 이름·주제·주제세목이며, 통일표제는 이름 범주에 포함된다. 주제세목의 표목 필드는 일반세목 X80, 지리세목 X81, 연대세목 X82, 형식세목 X8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전거통제의 결과 생성된 레코드들의 집합'을 전거레코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개별 단위가 전거레코드이고, 그 레코드들의 집합은 전거파일이다. 올바르게는 '전거통제의 결과 생성된 전거레코드들의 집합을 전거파일이라고 한다'이다.
② X — 전거통제용 KORMARC의 기본 범주에 '표제'를 이름과 별개의 범주로 추가한 부분이 틀렸다. 통일표제는 이름 범주에 포함되므로, 올바르게는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주제·주제세목의 전거형식, 참조로 사용되는 이들의 다른 형식, 그리고 전거형식과 참조 간의 상호관계 정보를 담도록 설계되었다'이다.
③ O — 검색에 쓰이는 접근점의 형식을 통제하여 동일한 대상을 일관된 형식으로 검색하게 하고, 이형·관련 접근점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전거통제의 핵심 의미에 맞는다.
④ X — 형식세목의 부호를 X83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일반세목 X80, 지리세목 X81, 연대세목 X82, 형식세목 X85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개별 레코드'와 '레코드의 집합'을 뒤바꾸고, ②는 통일표제를 이름과 별개의 기본 범주인 것처럼 나열하며, ④는 연속 번호처럼 보이게 형식세목을 X83으로 제시한다. 특히 주제세목 부호는 X80·X81·X82 다음이 X83이 아니라 X85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정을 묻는지, 개별 결과물인지, 결과물의 집합인지부터 구분한다. '접근점 형식의 통일과 상호 연결'이면 전거통제, 하나의 전거 단위이면 전거레코드, 레코드의 집합이면 전거파일이다. KORMARC 주제세목 부호는 일반·지리·연대·형식의 순서와 함께 X80·X81·X82·X85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통제는 과정, 레코드는 하나, 파일은 집합이다. 주제세목은 일반 80·지리 81·연대 82·형식 85이다.

NoteBase

17. KCR4에 근거했을 때, 다음 중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만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간행되고 고유한 표제를 지닌 부록이나 보유 ㉡ 합철본 ㉢ 도서의 구성요소(장이나 절)로 구성된 자료(별쇄본) ㉣ 팜플렛 ㉤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동일한 표제 아래 계속해서 간행되는 일련의 간행물 전체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CR4에서 단행본에 준하여 취급하는 자료와 종간을 예정하지 않은 연속간행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에는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간행되고 고유한 표제를 지닌 부록이나 보유(ㄱ), 합철본(ㄴ), 도서의 장·절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별쇄본(ㄷ), 팜플렛(ㄹ)이 포함된다.
반면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동일한 표제 아래 계속 간행되는 일련의 간행물 전체(ㅁ)는 연속간행물에 해당하므로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이지만, 별쇄본인 ㄷ과 팜플렛인 ㄹ도 포함되므로 열거가 불완전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 ㄱ, ㄴ, ㄷ뿐 아니라 팜플렛인 ㄹ도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O — ㄱ의 독립 간행 부록·보유, ㄴ의 합철본, ㄷ의 별쇄본, ㄹ의 팜플렛을 모두 포함하고 연속간행물의 정의인 ㅁ을 제외한 조합이다.
④ X — ㄹ을 제외하고 ㅁ을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ㅁ은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동일 표제 아래 계속 간행되는 연속간행물이므로 제외하고, 팜플렛인 ㄹ을 포함하여 ㄱ,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팜플렛은 분량이나 외형 때문에 단행본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KCR4에서는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에 포함된다. 반대로 ㅁ의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와 '계속해서 간행'은 연속간행물을 판별하는 결정적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의 외형보다 간행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부록·보유, 합철본, 별쇄본, 팜플렛은 단행본에 준하는 자료로 묶고, 종간 예정 없이 동일 표제로 계속 간행되면 연속간행물로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단행본 준용은 독립 부록·보유, 합철본, 별쇄본, 팜플렛이고, '종간 예정 없음+동일 표제 계속 간행'은 연속간행물이다.

NoteBase

18. 자료분류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합목적성: 모든 분류는 그 목적이나 성격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상호의존성: 주제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각 단계의 분류지는 배타적이면 안 된다.
③ 망라성: 어떤 피분류체의 분류지를 모두 합치면 그 피분류체의 외연 전체와 부합해야 한다.
④ 일관성: 어떤 주제나 대상에 복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료분류의 기본원칙인 합목적성, 상호배타성, 망라성, 일관성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목적성은 분류가 그 목적과 자료의 성격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호배타성은 같은 단계의 분류지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라성은 하위 분류지를 모두 합치면 상위 분류지의 범위를 빠짐없이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관성은 동일한 분류 단계에서 하나의 분류 원리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합목적성은 모든 분류가 분류의 목적과 대상의 성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각 단계의 분류지는 배타적이면 안 된다'이다. 상호배타성은 같은 단계의 분류지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각 단계의 분류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망라성은 어떤 상위 분류지 아래의 하위 분류지를 모두 합하면 그 상위 분류지의 외연 전체를 빠짐없이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옳다.
④ O — 일관성은 동일한 주제나 대상을 나누는 한 단계에서 복수의 분류 원리를 섞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상호배타성'이라는 원칙명을 제시하면서 정작 분류지가 배타적이면 안 된다고 반대로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상호배타성은 주제 간 관련성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단계의 분류지가 겹치지 않게 구분된다는 뜻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성격에 맞춤은 합목적성, 같은 단계에서 겹치지 않음은 상호배타성, 하위 항목의 합이 상위 범위를 빠짐없이 채움은 망라성, 한 단계에 하나의 분류 기준을 적용함은 일관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합목적성은 목적에 맞게, 상호배타성은 겹치지 않게, 망라성은 빠짐없이, 일관성은 한 기준으로 기억한다.

NoteBase

19. 다음은 패싯분류표(Facet(or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s)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어떤 분류 특성을 적용하여 지식(학문)세계를 기본 주제로 구분 및 세분하여 일정한 조합공식에 따라 합성을 하는 체계이다.

② 현존하는 개념들을 기호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수용하고 지식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CC(Colon Classification)가 있다.

④ 기존 주제만을 열거하게 되고,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는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거식 분류표에 비해 편찬하기가 어렵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패싯분류표의 분석합성 원리, 기호의 합성 가능성, 대표 분류표 및 열거식 분류표와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싯분류표는 복합적인 주제를 기본 주제와 여러 패싯으로 분석한 뒤, 필요한 개념의 기호를 일정한 인용순서에 따라 합성하여 분류기호를 만드는 분석합성식 분류표이다. 주제를 완성된 형태로 미리 모두 나열하는 열거식 분류표와 달리, 개념 요소와 결합 규칙을 제시하므로 새로운 주제와 복합주제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CC)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패싯분류는 분류 특성을 적용하여 지식 세계를 기본 주제와 패싯으로 분석하고, 정해진 조합 원칙에 따라 다시 합성하는 체계이다.

② O — 이미 존재하는 개념의 기호를 조합하여 새로운 주제의 분류기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제를 수용하고 지식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O — CC(Colon Classification)는 랑가나단이 고안한 대표적인 분석합성식 패싯분류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열거식 분류표에 비해 편찬하기가 어렵다'이다. 패싯분류표는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완성된 형태로 모두 열거하지 않고 기본 주제·패싯·개념 요소와 결합 규칙을 제시하므로, 방대한 주제를 일일이 열거하는 분류표보다 일반적으로 편찬과 개정이 용이하다. 올바르게는 '합성주제와 복합주제는 필요한 개념 요소를 합성하여 표현하므로 열거식 분류표보다 편찬과 개정이 용이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열거하지 않는다'는 특징에서 곧바로 '편찬하기 어렵다'는 반대 결론을 끌어낸다. 완성된 복합주제를 미리 열거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아니라, 적은 개념 요소와 합성 규칙으로 많은 주제를 표현하여 편찬·개정을 쉽게 하는 근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한다 → 기호를 일정한 순서로 합성한다 → 새로운 복합주제를 유연하게 표현한다'는 흐름에 맞으면 패싯분류표의 특징이다. 반대로 모든 복합주제를 완성된 형태로 미리 나열하거나, 그 때문에 열거식보다 편찬이 더 어렵다고 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패싯분류는 분석 후 합성, 대표는 CC, 장점은 신주제 수용과 편찬·개정의 용이성이다.

NoteBase

20. 다음은 한국의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목록규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입에 따른 표제명기본표목의 원칙을 따름
- 한국인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근대적인 목록규칙임
- 서명(표제명)을 기본목록으로 확정함
- 저자명기본표목의 국제적인 추세를 수용하지 않음

① 한국목록규칙(韓國目錄規則)
② 조선동서편목규칙(朝鮮東書編目規則)
③ 동서목록규정(東書目錄規程)
④ 한은도서편목법(韓銀圖書編目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 목록규칙의 발달사에서 편찬 주체, 기본표목, 전통적 목록기입법이라는 단서를 이용해 해당 규칙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근대적 목록규칙이다. 동양의 전통적 목록기입법을 바탕으로 서명, 즉 표제명을 기본표목으로 정했으며, 저자명기본표목을 중심으로 전개된 당시의 국제적 추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핵심 특징이다.
구별 기준은 '한국인 편찬 최초의 근대적 규칙·표제명기본표목·동양의 전통·저자명기본표목의 국제 추세 미수용'이라는 네 단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한국목록규칙은 제시된 네 특징으로 특정되는 규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한국목록규칙'이며, 올바르게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이다.
② O —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근대적 목록규칙으로, 동양의 전통적 목록기입법을 따르고 표제명을 기본표목으로 확정했으며 저자명기본표목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지 않았다.
③ X — 동서목록규정은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인 편찬 최초의 근대적 목록규칙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동서목록규정'이며, 올바르게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이다.
④ X — 한은도서편목법은 지문의 네 단서에 해당하는 규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한은도서편목법'이며, 올바르게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한국목록규칙'은 명칭이 포괄적이어서 정답처럼 보이지만, 지문은 일반적인 한국의 목록규칙이 아니라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근대적 규칙을 묻는다. 또한 '표제명기본표목'과 '저자명기본표목의 국제 추세 미수용'이 조선동서편목규칙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국 목록규칙의 명칭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기본표목이 표제명인지 저자명인지 확인한다. 여기에 '한국인 편찬 최초의 근대적 목록규칙'과 '동양의 전통적 목록기입법'이 함께 제시되면 조선동서편목규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선동서편목규칙 = 한국인 편찬 최초의 근대적 목록규칙 + 표제명기본표목 + 동양 전통 중시.

NoteBase

21. KDC 6판 해설서는 일관성 있는 분류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분류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KDC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에 따라 작성된 분류 기호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게 짝지은 것은?
① 주제와 형식: 독일어 백과사전 → 753
② 복수주제: 배, 바나나, 귤의 재배 → 525.6
③ 원저작과 그 관련 저작: 부활(톨스토이 원작의 한글 번역판) → 892.83
④ 주제와 연구 방법: 심리학 연구방법론 → 180.73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주제와 형식, 복수주제, 원저작과 번역서, 주제와 연구방법의 관계에 따라 분류기호를 정하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 백과사전은 특정 주제가 아니라 백과사전이라는 자료의 형식과 사용 언어에 따라 030 아래에 분류한다. 반면 특정 주제를 다룬 자료는 원칙적으로 그 주제에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형식이나 연구방법을 나타내는 구분을 부가한다. 여러 개의 대등한 주제가 하나의 상위 항목에 함께 속하면 공통되는 상위 분류기호를 적용하며, 번역서는 번역된 언어가 아니라 원저작의 문학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독일어 백과사전 → 753'이 틀린 짝이다. 독일어로 쓰인 일반 백과사전은 백과사전 030 아래에서 언어를 구분하여 035에 분류한다. 753은 독일어의 사전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독일어 백과사전 → 035'이다.
② O — 배·바나나·귤은 서로 대등한 여러 종류의 과수이다. 세 과수의 재배를 함께 다루므로 각 과수의 세목 하나를 택하지 않고 공통 상위 항목인 과수재배 525.6에 분류한다.
③ O — 번역서는 번역문이 한글이라는 이유로 한국문학에 분류하지 않고 원저작의 문학에 분류한다. 톨스토이의 러시아 소설 『부활』 한글 번역판은 원저작과 같은 892.83에 분류한다.
④ O — 연구방법론은 독립된 주제로 옮겨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연구방법을 나타내는 구분을 부가한다. 따라서 심리학 연구방법론은 180.73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독일어'를 독일어라는 주제로 오인하면 750 계열의 753을 고르기 쉽다. 여기서 독일어는 백과사전의 내용 주제가 아니라 일반 백과사전이 쓰인 언어이므로 030 계열에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제의 표현이 자료의 내용 주제인지 형식·언어인지 구분한다. 이어 복수주제는 공통 상위 항목을 찾고, 번역서는 원저작의 문학을 따르며, 연구방법 자료는 연구대상 주제에 방법 구분을 부가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백과사전은 030과 언어, 복수주제는 공통 상위류, 번역문학은 원저작,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주제가 기준이다.

NoteBase

22. 다음은 DDC 23판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조표 'T1: 표준세구분'은 본표에 '부가하라'는 지시가 없어도 모든 주제에 적용, 어떤 주제와도 조합이 가능하다.

② DDC는 계층적 구조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9개의 유와 1개의 총류(總類)로 구성되어 있다.

③ 보조표 T2는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에서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Biography'로 변경되었다.

④ 보조표 T5는 본표의 부가 지시사항에 따라 추가되거나 표준세구분표(T1)의 -89 민족 및 국가군 기호를 앞세워 추가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DDC 23판의 계층 구조와 보조표 T1·T2·T5의 명칭 및 합성 방법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10개의 류로 나누는 계층적 분류표이며, 9개의 주제 분야와 이를 포괄하는 1개의 총류로 구성된다. 보조표 T1은 여러 주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세구분, T2는 지역·역사시대·전기를 나타내는 기호, T5는 민족 및 국가군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T5를 표준세구분을 통해 합성할 때 앞세우는 T1 기호는 -089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T1의 표준세구분은 본표에서 별도의 부가 지시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여러 주제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보조표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와도 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은 T1의 기본 성격에 부합한다.

② O — DDC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최상위의 10개 류는 9개의 주제 분야와 1개의 총류로 이해할 수 있다.

③ O — DDC 23판에서 T2의 명칭은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Biography'이다. 종전 명칭의 'Person'이 'Biography'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T1의 기호를 '-89'라고 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T5 기호를 본표의 부가 지시에 따라 직접 추가하거나, 표준세구분표 T1의 '-089 민족 및 국가군' 기호를 앞세워 추가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T5의 합성 원리 자체는 맞게 제시하고 세 자리 표준세구분 기호에서 0 하나만 뺀 선지이다. ‘민족 및 국가군’이라는 말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89와 -089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 보조표 문항에서는 먼저 보조표의 기능과 명칭을 확인한 뒤, 합성 기호의 자릿수까지 대조한다. T5를 T1을 거쳐 합성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T1의 정확한 기호가 -089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T1은 표준세구분, T2는 지역·역사시대·전기, T5는 민족 및 국가군이며, T5의 표준세구분 연결 기호는 -089이다.

NoteBase

23. 다음은 목록원칙, 목록규칙, 목록지침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적합한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목표는 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 표준화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 목록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며 이용자의 편의 고려를 가장 중요시한다.
- IFLA에서 발간한 FRBR에서 제시한 개념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 현행 도서관 목록에 전용된다.

① IC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② ISBD(International Standard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③ ICP(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④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목록의 국제적 원칙인 ICP와 국제표준서지기술인 ISBD, 목록규칙인 RDA, 국제회의인 ICCP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CP(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는 목록 작성의 국제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문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FRBR의 개념 모형을 토대로 하며,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 및 현행 도서관 목록에 적용된다는 단서가 핵심이다.
ICCP는 국제목록원칙회의이고, ISBD는 서지사항의 기술 방식과 요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기준이며, RDA는 자원의 기술과 접근을 위한 목록 내용표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ICCP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즉 국제목록원칙회의를 뜻하는 회의 명칭이다. 제시문처럼 이용자 편의를 중시하고 FRBR 개념 모형에 기초한 목록 원칙의 명칭은 ICCP가 아니라 ICP이다.
② X — ISBD는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으로, 서지기술의 요소와 배열 및 구두점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표준이다. 제시문의 명칭은 ISBD가 아니라 ICP이다.
③ O — ICP는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이다. 국제적 목록 원칙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며, FRBR 개념 모형에 기초하여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 및 현행 도서관 목록에 적용된다는 제시문의 모든 단서와 일치한다.
④ X — RDA는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로, 자원의 기술과 접근을 위한 목록 내용표준이다. FRBR 계열 개념 모형과 관련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제시문이 묻는 국제적 목록 원칙의 명칭은 RDA가 아니라 ICP이다.

오답 포인트

FRBR에 기초한다는 단서만 보면 RDA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목록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 '이용자의 편의를 가장 중요시',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에 적용'이라는 단서를 함께 묶으면 ICP이다. 또한 ICCP는 원칙 자체가 아니라 회의 명칭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칙과 방향 및 이용자 편의를 강조하면 ICP, 서지기술의 형식과 구두점 표준이면 ISBD, 실제 자원 기술과 접근을 위한 내용표준이면 RDA, 국제회의를 가리키면 ICCP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CP는 목록 원칙, ICCP는 회의, ISBD는 서지기술 표준, RDA는 자원 기술·접근 규칙이다.

NoteBase

24. KORMARC 통합서지용(2014년판)의 작성에 있어, 표제면과 판권기 표제가 다를 경우 판권기 표제를 기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650 ② 130
③ 504 ④ 24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제면의 본표제와 판권기 표제가 다를 때 판권기 표제를 수록하는 KORMARC 필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46 필드는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록하여 본표제와 다른 표제로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필드이다. 따라서 본표제와 다른 판권기 표제는 246 필드에 기술한다.
650은 일반주제명을 위한 주제명부출표목, 130은 기본표목으로 사용되는 통일표제, 504는 서지·색인 등의 존재를 알리는 주기 필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650은 일반주제명을 기록하는 주제명부출표목 필드이므로 판권기 표제를 입력하는 필드가 아니다. '650'은 '246'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30은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통일표제를 기록하는 필드이므로 본표제와 다른 판권기 표제를 입력하는 용도가 아니다. '130'은 '246'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504는 서지, 색인 등 참고문헌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주기 필드이므로 판권기 표제와 관계없다. '504'는 '246'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246은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록하는 필드이며, 본표제와 다른 판권기 표제를 이 필드에 입력한다.

오답 포인트

130도 표제를 다루므로 246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130은 통일표제를 기본표목으로 삼을 때 쓰고, 246은 본표제와 다르게 나타난 판권기 표제 같은 변형 표제를 기록할 때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의 다른 위치에 본표제와 다른 표제가 나타나 검색 접근점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면 246을 선택한다.
주제명은 650, 통일표제 기본표목은 130, 서지 관련 주기는 504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다른 형태의 표제는 246, 일반주제명은 650, 통일표제 기본표목은 130, 서지 주기는 504이다.

NoteBase

25. FRSAD의 개체 중 '저작의 주제로 사용된 개체'를 일컫는 개체는?
① 표현형(expression)
② 테마(thema)
③ 노멘(nomen)
④ 구현형(manifest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FRSAD에서 저작의 주제로 사용되는 개체인 테마(thema)와 그 테마를 지칭하는 명칭인 노멘(nomen)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테마(thema)는 저작의 주제로 사용된 모든 개체이다. 노멘(nomen)은 테마가 알려지거나 언급되거나 지칭될 때 사용하는 기호 또는 기호의 연속이다. 즉 저작은 테마를 주제로 삼고, 노멘은 그 테마를 이름 붙여 식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표현형(expression)은 저작의 지적·예술적 실현을 뜻하므로 저작의 주제로 사용된 개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표현형'이며, 올바르게는 '테마(thema)'이다.
② O — 테마(thema)는 FRSAD에서 저작의 주제로 사용된 모든 개체를 뜻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 노멘(nomen)은 테마 자체가 아니라 테마를 알거나 언급하거나 지칭하게 하는 명칭·기호이다. 틀린 표현은 '노멘'이며, 올바르게는 '테마(thema)'이다.
④ X — 구현형(manifestation)은 표현형이 물리적 매체에 구현된 출판·제작의 형태를 뜻하므로 저작의 주제로 사용된 개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구현형'이며, 올바르게는 '테마(thema)'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테마와 ③의 노멘을 바꾸어 고르기 쉽다. 테마는 '무엇에 관한 저작인가'의 대상이고, 노멘은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의 명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두에 '저작의 주제'가 나오면 테마를 고르고, '테마를 지칭하는 명칭·기호'가 나오면 노멘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저작은 테마를 주제로 삼고, 노멘은 테마를 이름 붙인다.

NoteBase